

특별기획



백구사랑회 쌀 80포 기탁

김제 백구면에 온정의 기부행렬

설명절을 맞아 백구면 관내에 많은 이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 연시에 기업과 개인이 현금과 현물로 많은 지원의 손길이 이어졌고 요즘 설명절을 앞두고 지속적인 선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일 학동교회(윤규남 목사)에서는 역대 2kg 100여개를 만들어 독거노인 어르신 100분에게 직접 배달했다.

또한 백구사랑회에서는 10년째 고향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는데 쌀(10kg) 80포를 경포당과 마을에 후원해달라며 기탁하였다.

특히 백구사랑회는 이름에 걸맞게 고향사랑들과 출향인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해마다 잊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곳곳 온정의 손길 잇달아

설을 맞아 민주평통 부안군 협의회 이영식 회장이 동진면을 방문해 저소득층에게 쌀 100포(10kg)를 기탁했다.

이영식 회장은 매년 설·추석명절에 불우한 이웃을 돕는 선정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도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물품을 전달. 동진면은 기탁받은 쌀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및 차상위 장애인 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산면 소재 주산교회도 주산면 관내 홀몸 어르신 50세대에 쌀 20kg씩 총 1000kg을 기탁. 주산면 소산리 성덕 마을에 위치한 쌀가공시설인 라이스프라자 RPC(대표 신정후)에서도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불우이웃 50세대에 쌀 10kg씩 500kg을 전달했다.

김문갑 주산교회 목사는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주산면 어르신 모두 외롭지 않은 새해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쌀을 나누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

김제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이하는 설명절을 앞두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1월 말까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2개년 4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하고 설 인사 명목의 선물, 금품 수수, 향응접대 등 청탁금지법 이행실태, SI 방역 대응 실태, 소극행정,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불필요한 규제, 다중이용시설 안전 소홀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근무지 이탈, 근무 중 음주행위 등을 집중 감찰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설 맞아 군·경 위문

김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0일 군부대와 경찰서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과 의경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제시는 평소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역안보와 민생치안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제경찰서와 김제안위대대를 찾아 노고를 격려했으며 돼지고기와 라면 등을 전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관광명소 선정 '풍년'

내소사와 격포항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변산해변 자전거길 아름다운 자전거여;행길

변산반도 한국관광 100선

해님이 술 섬길 포구 걷기 여행길 10선



내소사

축복의 땅,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만복(扶來滿福)'의 고장 부안이 각종 관광명소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명품관광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부안군이 최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아름다운 자전거여행길, 2017~2018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2017년 1월에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 등에 잇따라 선정됐다.

천년 고찰 내소사와 격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근 선정됐다.

우리 나라 지역관광의 수준을 높이고 3~4개의 지자체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어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로 한 권역당 5년간 국비 77억원을 부안과 전주·군산·고창과 함께 '시간여행' 코스로 지원 받는다.

전나무숲길 아름다운 천년 고찰 내소사는 대웅전과 고려 동종, 영산회과불탱, 법화경절본사본 등 다양한 보

물이 있어 내소사만의 보물창고도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며 대웅보전 문에 꼭꼭 숨겨둔 꽃문양 문살은 내소사만의 자랑이다.

부안마실길 3코스인 변산해변 자전거길은 사계절 언제나 자전거를 타고 떠나기 좋은 여행길로 '아름다운 자전거여행길'에 뽑혔다.

부안 고사포해수욕장에서 시작해 변산 해변도로와 적벽각·수성당, 격포해수욕장, 격포항으로 이어지는 변산해변 자전거 길은 산과 바다, 들과 강이 아름다운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서쪽 해안도로로 변산8경인 서해 낙조를 볼 수 있는 코스다.

부안을 대표하는 관광지 변산반도는 '2017~2018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관광 100선은 지난 2013년부터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

공사 온라인 설문조사와 현장평가 등을 토대로 선정하며 부안 변산반도는 2회 연속 선정됐다.

변산반도는 우리 나라 유일의 반도 국립공원으로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조금 늦은 1988년 1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및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생태관광지의 요건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맛과 멋이 있는 포구 걷기여행길 10선'으로 부안마실길 4코스인 '해님이 술 섬길'을 뽑았다.

격포항에서 이순신항영세트장과 공항마을, 삼록해수욕장을 지나 술섬으로 이어지는 해님이 술섬길은 부안의 참모습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코스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설 산불 예방 '총력'

31일까지 산불대책본부 설치 비상 근무 실시

정읍시가 설 명절 전 후인 오는 31일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직원 비상 근무를 실시한다.

시는 설 명절 전 후 성묘객과 귀향객이 많아짐에 따라 공동묘지 주변이나 주요 등산로 등에서의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림복지과와 읍면동 산불대책본부에서는 차량을 이용해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한 방송을 강화하고 쓰레기 소각 금지 산불 예방 수칙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되는 산불조심 기간에 앞서

상시 산불 예방 진화대를 선발, 20일 부터 예방과 진화활동에 들어갔다. 상시 산불 예방 진화대는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주요 입지 주변 마을을 돌며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산불 발생 시 진화 활동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단 한 번의 산불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폐허가 된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시는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 진화대는 내달 2일 발대식을 갖고 안전교육을 가진 후 관할 구역 편성과 임무 사항 숙지 등을 거쳐 8일부터 산불예방 근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남권 추모공원, 설 정상 운영

서남권 추모공원이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정상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설 당일에는 화장장에 한해 2회 차인 11시부터 3회(11시, 13시, 15시) 운영한다.

또 봉안당은 참배객 편의를 위해 4일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시간을 늘렸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추모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상환 근무조를 편성에 정상근무하고 교통과 주차 안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봉안당의 깨끗한 시설과 환경 관리를 위해 사용한 제재 음식과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휴무일에 어르신들 점심 대접"

김제 교월동 착한가게 1호점 '황제스테이크갈비' 탄생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 나누는 착한가게 김제시 1호점이 탄생했다.

지난해 연말 김제시 갈공동에 위치한 황제스테이크갈비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김태한 교월동장은 지난 19일 착한가게 현판을 직접 달아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전에서 요식업을 운영해오던 박건우 대표는 김제에 새로운 사업장을 내고 개업에 앞서 사업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기업이념을 기본가치로 출발하겠다고 교월동 맞춤형복지팀에 자발적 기부 의사를 표명하였고 휴무일을 이용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중식을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어 착한가게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착한가게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기부

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로 바쁜 가게운영으로 봉사과 기부를 마음 속에만 담고 계셨던 소규모 자영업자가 나눔에 동참하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가게이다.

또한 김제시 북쪽동 소재의 맛돌순두부(대표 최병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0만원을 기부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김태한 동장은 "착한가게 1호점이 교월동에서 탄생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게들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후원자들의 착한 마음에 감동하였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구축 나서

착유펌프 진공펌프로 8대 교체... 2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정읍시가 우유 생산 농가의 소득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선다.

친환경 우유 생산 기반 구축은 기존 오일 사용 방식의 착유 펌프를 무(無)주유식 진공 펌프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1억4,400만원(지특 7,200, 시비 1,440, 자부담 5,760)을 투입해 올해 8대의 펌프를 교체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많으면 착유 두수와 낙농 경력, 친환경인증 여부, HACCP 지정과 검정사업 실시 여부 등 심사



정읍시가 친환경 우유 생산을 위해 기존 오일 사용 방식의 착유 펌프를 무(無)주유식 진공 펌프로 교체한다.

기준을 마련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가 지난 해 11월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는 모두 38농가가 신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various wine bottles and gift sets, along with text describing the product and its benefits.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images of a bear mascot and a bowl of mulberries.